

순천만정원 '250만송이 꽃대궐' 봄의 서막 알린다

100만 튤립·목련 등 봄꽃 릴레이 개화 힐링 체험·미식 등 체류형 관광 '눈길' 정원사 팜방울 결실...지역 경제 견인 정원드림호·스카이큐브·관람차 운행



순천만국가정원이 단순한 꽃 관람을 넘어 다채로운 힐링 체험과 미식을 아우르는 '완성형 봄 여행지'로 새롭게 탈바꿈해 상춘객을 맞이한다. 사진은 지난해 순천만 스페이스허브에서 봄을 만끽하는 시민과 관광객 모습. <순천시 제공>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의 전령사를 맞이한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이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초록빛 생명의 향연'을 펼치며 전국 상춘객들의 발걸음을 강렬하게 유혹한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3월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이 다채로운 봄꽃과 이색적인 체험 콘텐츠, 미식 투어를 총망라한 '완성형 봄 여행지'로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돌입했다.

올해 웅장한 국가정원의 봄을 알리는 선두 주자는 단연 '튤립'으로, 전국 첫 개화 기록을 세운 튤립은 동원 맞이원과 스페이스허브, 네덜란드 정원 등 전역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60종, 100만본 규모로 총총히 식재돼 압도적인 볼거리를 선사하며, 신축 재배장에서 일궈낸 첫 결실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여기에 노을정원과 나무도감원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백목련과 자목련을 시작으로 수선화, 아네모네, 벚꽃, 유채 등 무려 250만송이의 봄꽃 군단이 3월 내내 릴레이로 망울을 터뜨리며 거대한 꽃대궐을 연출할 예정이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류형 콘텐츠도 대폭 강화됐다. 정원을 무대로 손을 움직여 뇌에 휴식을 주는 '생산적 휴식, 가든 명' 행사와 손끝의 몰입을 유도하는 '뜨개질 명', 문장을 채집하는 '글명' 등

나만의 맞춤형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미식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벚꽃이 흠날리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소중한 사람들과 피크닉을 즐기는 예쁜 도시락 콘테스트가 열리고, BBQ빌리지와 프랑스정원 등 곳곳에서

다채로운 미식 경험이 더해져 입이 즐거운 여행을 완성한다.

정원의 아름다움을 색다르게 조망할 수 있는 이동 수단도 매력적인 즐길 거리다. 정원과 동천을 잇는 수상 보트 '정원드림호', 순천만과 연결되는 '스카이큐브', 정원 내부를 산뜻하게 도는 '관람차'가 상시 운행된다.

이처럼 완벽한 봄의 정원이 탄생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100여명 정원사들의 값진 팜방울이 녹아 있다.

이들은 영하의 겨울 날씨 속에서도 공공 언 땅에 일일이 구근을 심고, 매일 새벽녘에 출근해 정성껏 물을 주며 송고한 생명을 키워냈다.

더불어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도심으로 유입돼 숙박, 식사, 쇼핑 등 폭발적인 소비를 일으키며 이제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시 전체의 경제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핵심 동력자가 '심장'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활짝 핀 봄꽃과 다채로운 힐링 콘텐츠, 그리고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한 데 어우러져 비로소 정원의 봄이 완성된다"며 "3월의 눈부신 국가정원에서 각자의 방식과 속도로 자유롭게 행복한 낭만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고흥군, 복지부 소속 '소록도 관리권' 이관 잔걸음

郡, 2-3월 범군민 서명 운동 추진 주민 79% 찬성...밀착행정 실현

고흥군이 한센인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가 서린 '소록도'의 관리권을 이관받아 체계적인 보존과 밀착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소록도 전역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소록도병원 관할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 행정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 부재에 따른 문화

유산·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영민 군수는 소록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관 건의를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병원 외 구역의 행정 기능을 고흥군으로 넘길 것을 지시하면서 현재 부처 간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장의 쇄신 열망도 뜨겁다. 지난해 10월 소록도 거주 주민 3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79%가 고흥군 주도의 관리권 이관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군은 이 같은 민의를 든든한 동력 삼아 2-3월

을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읍·면사무소 오프라인 창구는 물론, 군 누리집과 SNS의 정보누리(QR코드)를 통해 여론을 결집,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소록도는 천혜의 자연과 가슴 아픈 역사가 공존하는 곳으로 훼손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편안한 맞춤형 복지야와 일상을 선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장성군, 스마트 워치로 군민 건강 챙긴다

31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참가자 모집

장성군은 2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군민들의 일상 속 건강을 빈틈없이 챙기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 가동하며 든든한 보건 버팀목 역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워치 등 지급된 건강관리

기기와 전용 앱을 연동해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6개월간 맞춤형 상담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걷기와 식생활 개선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두둑한 인센티브도 주어지며 참여 열기가 뜨겁고, 실제로 지난해 참여자 70명 중 57%가 뚜렷한 생활 습관 개선 효과를 거두며 괄목할 만한 성

과를 냈다. 이에 군은 올해 20-64세 관내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오는 31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장성군 보건소 건강정책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한중 군수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체계적인 밀착 관리로 단 한명의 소외됨 없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김문태 기자



곡성군, 입면에 '마을빨래방' 개소

이달부터 무료 세탁 서비스 돌입

곡성군이 고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농촌 어르신들의 목은 빨래감과 생활 불편을 말끔히 씻어내는 맞춤형 복지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입면농협에서 주민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면 마을 빨래방' 개소식을 성황리에 열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

해당 시설은 전국 각지의 기부자들이 9개월간 십시일반 모은 고흥사랑 지정기부금으로 조성된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이다. 대형 이불 빨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거동 불편 가구를 위해 무료 세탁은 물론, 마을

별 방문 수거와 배달 서비스까지 윈스톱으로 밀착 제공해 주민들의 든든한 복지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특히 단순한 세탁 지원을 넘어 이웃 간 안부를 묻고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며, 고흥사랑기부제가 실질적인 주민 혜택으로 이어지는 가장 모범적인 순기능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정성이 주민 체감형 복지로 꽃피우게 돼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아과 병원 설립,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등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총출력 밀착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보성군, 지역상품권 '최대 14%' 지원

보성군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보성사랑상품권 혜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4%까지 확대한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할인은 인구 감소지역 국비 지원 비율 확정에 발맞춰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기존 카드형 상품권은 구매 시 10% 선할인에 걸쳐 금액의 2% 캐시백을 더해 12%의 혜택을 주어졌으나, 3월부터는 2% 캐시백이 추가 적립돼 총 14%의 파격적인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누적된 캐시백은 '지역상품권 차(Chak)' 앱의 설정 기능을 통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형 상품권은 기존 10% 할인이 유지되며, 카드·지류를 합산한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7만원이다.

군은 할인을 대폭 상황에 따른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한층 촘촘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대폭 상향된 상품권 혜택이 팍팍한 가계 경제를 돕고 소상공인 매출을 견인하는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경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여수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내달 개통

공간 예약·상담 관리 등 편의성 ↑

여수시가 흩어져 있던 청년 지원 정책을 한곳에 끌어모아 검색부터 신청, 사후 관리까지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전격 구축한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정책플랫폼 구축사업' 최종 용역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스템기동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플랫폼은 그동안 각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파편화돼 있던 청년 정책 정보를 단일 망으로 일원화한 핵심 소통 창구로, 청년들이 여러 누리집을 전전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지원 사업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연령, 지역, 지원 분야 등 세부 조건

을 설정하면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정책을 선별해 주는 '맞춤형 검색'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사각 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아울러 공간 예약과 상담 관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이달 중 오류 수정 등 시스템 정교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다음 달 정식 개통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필요한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정책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전남경찰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 사고 예방 '총력'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최근 봄철 해빙기와 춘곤증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출력 도로 안전망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2일 밝혔다.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매일 오전 6시, 오후 2-11시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일제히 사이렌을 울리는 '집중 알람 순찰'을 전격 실시하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해빙기 대형 사고의 주범인 포트홀을 신속히 보수하고, 낙석 붕괴 위험이 높은 절개지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사진>

위중호 제5지구대장은 "봄철 졸음운전은 무방비 상태의 추돌로 이어져 치사율이 월등히 높다"며 "나의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졸음에는 휴식'이라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